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1년 8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끊임없이 간청하여라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0번 “구하시오 받으리라” 1절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시간 당신 사랑의 현존 안에 깊이 머무르게 하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 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줄라 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참된 자세는 끊임없는 자세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하느님 아버지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서는 꼭 들어주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서로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고 찾고 두드려라.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여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껴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묵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와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에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야고 4,3)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둘째, 하느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듯싶어도, 그분은 분명 미래를 내다보시며 또 다른 계획을 갖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느님의 계획을 찾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어서는 안 될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에는 하느님께서 절대 들어주셔서 안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같은 기도를 들어 주시면 미래의 우리네 삶이 더욱 불행과 곤경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님기도의 가르침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루카 11, 11-12)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우리의 기도가 항구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면서 며칠, 혹은 몇 달을 못 가 포기하면서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항변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루카 11, 9-10)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믿고 그분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연중 제17주일 배광하 신부의 강론 중에서〉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0번 “구하시오 받으리라” 2절을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



미사보를 쓰지 않고 성체를 모시면 성사를 봐야 하나? 미사 중에 안 써도 된다는데 어느 쪽이 옳은가요?

미사보를 사용하는 교회의 전통은 바오로 사도로부터 유래합니다.(1코린 11장 참조) 하지만 바오로 사도의 권고는 그 시대 여인들의 머리치장이 요란스러웠던 까닭에 근거합니다. 이를테면 미사에 참여할 때에는 웃어른을 뵈는 마음가짐으로 단정하게 행동하는 것과 평소보다 더 맵시나도록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일과 같은 맥



락입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에서는 사라져버린 전통을 한국교회가 잘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의 사제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미사에서 가장 소중한 행위는 전례에 집중하는 몰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겠지요. 선포되는 복음말씀과 화답송의 의미를 영혼에 새겨 받고 성체로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은 빼앗길 수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보물입니다. 이제 미사는 하느님께 찬미를 바치는 기쁨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실천이나 행위를



검사하는 시간이 아닌 만큼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루고 형제자매와 하나 됨을 흥겨워하십시오. 미사보는 전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설사 미사보를 챙기지 못했더라도 잘못이 아닙니다. 분심들 까닭이 없지요. 겉모습에 얽매이지 말고 당당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그분을 기억하기보다 미사보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합당치 못합니다.

(「소곤소곤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장재봉, P.108~109)

믿음을 삶으로 초대

- 진영본당 11구역 광대현 소공동체 -

- 한정선(아네스) : 진영본당 구역분과위원장 -

진영본당은 17개 구역 1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공동체모임이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광대현 구역은 시골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열여섯 분이 참석하시는 모임에 처음에는 6, 70대 반원들이 대부분이었답니다. 그러나 인근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세례를 받으시거나 전입해 오시는 분이 생기게 되면서 젊은이들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대현 구역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라 여기에 한 집, 저기에 한 집, 이렇게 집들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웃을 권면하거나 전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소공동체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역장님과 총무님께서 시간이 허락되실 때마다 차량봉사를 해주시는 덕분에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모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모이기만 하면 재미있고 우애가 깊으며, 협동심과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모임을 갖게 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에서 천사 셋을 보고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제발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하면서 극진히 초대하고 대접했듯이 이곳 광대현 구역은 각자의 실정에 맞게 돌아가

면서 서로를 초대하여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 모임에는 16명(남 7명, 여9명)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지역적 특성상 전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을 하기 보다는 소공동체 모임에 충실히 나와 말씀을 나누고 본당행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복음나누기를 어려워들 한다고 하시지만 광대현 구역의 어르신들은 말씀나누기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나누신답니다. 또 소공동체 모임의 야외행사나 본당 성지순례가 있는 때면 내 구역 네 구역 할 것 없이 다른 구역의 반원들까지 살뜰히 챙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는 나누고 돌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뵈게 되기도 합니다.

6월 소공동체 모임이 있던 날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반원 모두가 참석하셨지요.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소공동체 모임



〈진영본당 광대현 소공동체 반원들〉

사랑과 일치의 작은 교회로 거듭나길 기도드립니다.

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 손뼉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는 지금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보다 많은 열매를 하나 둘 맺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대현 구역장님을 비롯해 모든 반원들께 감사드리며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